

도내 수출 감소세... 돌파구 없나

자동차 부품·합성수지 수출 성장세로 돌아서... 내년 전망 기대

전북지역의 수출실적이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11월 도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3%(9,900만달러) 감소한 5억 787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1위 수출 품목(MTI 3단 위 기준)인 자동차(-12.2%, 1,500만달러)의 수출 부진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월 대비 22.1%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합성수지와 농약 및 의약품, 인조섬유 등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울 들어 40%대의 수출 감소세를 보이던 대중국 수출이 10월 들어 -13.6% 감소에 그치면서 6월 이후 4개월 만에 수출 대상국 1위로 복귀한 이후 11월에도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알제리(3,451.1%)로의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화물차 등 자동차 수출 호조로 크게 증가했다. 전북지역은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 중 1.11%의 비중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한

3억 2,732만 달러 기록했다. 용도별로 보면, 수출용(전년 동월 대비 7.4%)은 증가했으나 내수용(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세를 보였다. 성질별로는 원자재(동 71.7%) 수입은 줄었으나, 소비재(동 32.3%) 및 자본재(동 11.7%)는 수입이 늘었다. 품목별로는 정밀화학 원료(-51.7%)가 급감세를 보이는 가운데 목재류(46.9%)와 농약 및 의약품(26.1%)은 수입이 급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30.9%)과 독일(40.6%)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증한 반

면 브라질(-38.3%)으로부터의 수입은 급감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1억8,055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217만달러 줄었다. 무역협회 김영준 전북본부장은 "전북 지역의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3% 감소했지만,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은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고 내년 전망도 좋다"며 "다만, 미국 행정부의 금리 및 무역정책에 따라 세계 경제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무역협회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이대훈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는 20일 김제·부안지역의 AI 방역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 김제·부안 AI 방역현장 점검

이대훈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는 20일 김제·부안지역의 AI 방역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대훈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강태호 전북농협본부장, 조합장들과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를 방문해 피해현황과 방역실효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하며,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좀 더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 농협상호금융은 농업인의 AI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 여신지원을 전국 농·축협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 피해농업인이 신규대출 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용 기자

블루베리 잎이나 가지만으로 품종 알아낸다

농촌진흥청이 DNA로 블루베리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블루베리 묘목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기능성이 뛰어난 과일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100여종의 다양한 블루베리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생산수입판매신고 건수는 1,080건이다.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는 주로 묘목업자가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농가가 구입할 당시에는 품종의 구분이 어렵고, 구

농진청, DNA 이용 블루베리 품종 판별 시스템 구축

입한 품종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국 품종의 도입, 묘목의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 서로 다른 품종이 섞이는 경우 생산자와 농업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 과수과에서는 블루베리 DNA로 품종을 쉽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 했다. 국내의 묘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수 묘목들은 1년~2년생의 어린 나무(유묘)로 주로 초겨울부

터 이른 봄에 거래된다. 이때는 과실을 포함한 품종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으로 품종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블루베리의 잎이나 가지, 과실 등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지 않고, 잎에서 추출한 DNA를 개발한 16가지의 분자표지를 조합해 비교함으로써 현재 주로 유통하고 있는 블루베리 45품종의 판별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간단한 실험기와 시설만 갖춰져 있다면 잎이 없는 겨

울철에도 가지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품종 판별엔 1일~2일이 걸린다. 이러한 품종판별 기술을 과수 묘목시장에 적용한다면 품종혼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과수과 조강희 농업연구사는 "이 기술이 과학적인 품종인증 시스템에 활용돼 블루베리 묘목시장의 안정화와 품종혼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이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익산도심 우회 자동차 전용도로 오늘 개통

익산국토청, 국도 23호선 황등-오산 구간 4차로 신설

익산도심을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KTX서부역사와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국도가 잇따라 개통하면서 익산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에서 함열읍 다승리에 이르는 국도 23호선 황등-오산 건설공사가 마무리돼 21일 오후 3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또,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서 송화동에 이르는 국도 27호선 장신-송화 도로확장공사도 30일 개통한다.

총 10.8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4차로)로 개통하는 황등-오산 공사는 지난 2009년 착공했으며, 총 1,831억원이 투입됐다. 도심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탄생으로 김제·부안에서 강경·논산 방면 이동시 상습 정체구간인 원광대 등 도심구간을 지나지 않고 곧바로 진행하면서 10~15분 정도의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형차량의 시내 진입 감소로 익산 도심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개통한 익산 중앙지하차도와 연결되는 장신-송화 도로공사는 총 1.2km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착공해 364억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이 개통하면 KTX서부역사에서 산업도로까지 전 구간이 8차로로 연결되면서 익산 원도심의 교통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시키는 국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정황근 농진청장, 성금 기탁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연말을 맞아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KBS 전주 방송총국을 찾아 전달했다. 정 청장은 20일 KBS전주 방송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에 참여해 성금을 내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직원들과 함께 모은 성금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중기중앙회 전북, 중소기업인 직능단체 워크숍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20일 전주 상관리조트에서 두원정 전북중소상공인직능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북 지역 12개 시·군 중소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중소기업인 직능단체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2017년에 지역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업종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침체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업계가 활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안재용 기자

기술개발지원사업 미리 준비하세요

중기청, 수출분야 중점 지원

전북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출·고용기업 위주로 기술개발지원금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성장 촉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양대 축으로 구분돼 지원되며 성과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장동력과 수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성장촉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등이 있으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R&D 역량지원 등이 있다. 전북중소기업청은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년 초에 지역순회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탁 청장은 "내년도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1월~2월에 집중되다 보니 미리 준비해 사업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은 'J+ Winter 환전 Festival'

전북은행은 겨울빙하 성수기를 맞아 내년 2월 28일까지 'J+ Winter 환전 Festival'을 실시한다. 행사 기간 전북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고객은 주요통화(USD, JPY, EUR) 80%, 기타통화(CNY, CAD, AUD, GBP, NZD) 40%를 환율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고객들도 주요통화 70%, 기타통화 30%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전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바로 현금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년 초에 지역순회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